

해외투자 진출기업 운영실태 조사

1999.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 자 협 력 처

※ 본 조사는 16개 해외투자 거점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 여건을 분석,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팀 이삼식

551-4219(전화), 551-4342(팩스), sslee3@kotra.or.kr(인터넷), kotrais(천리안)

목 차

제 1 장 서 론	1
I. 조사개요	1
II.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3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13
제 3 장 조사내용 분석	18
I. 투자형태	19
II. 해외투자동기	20
III. 기대투자 인센티브	25
IV. 수혜투자 인센티브	28
V. 공장입지 결정요인	31
VI. 기업의 현지화 및 글로벌화 정도	34
VII. 경영성과	40
VIII. IMF이후 변화	42
제 4 장 맺음말	47

제 1 장 서 론

1.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1998년 12월 1일 ~ 1999년 1월 10일
2. 조사대상 : 해외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15개국의 200개사.
진출지역별로는 후진국이 176개사로 88%이고, 선진국이 24개사로 12%임¹⁾.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2개사로 83.9%이고, 비제조업이 31개사로 16.1%임²⁾
3. 조사방법 : 팩스 및 전화조사 병행
4. 조사내용³⁾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투자형태, 해외투자동기, 기대투자 인센티브, 수혜투자 인센티브, 공장입지 결정요인, 기업의 글로벌화 정도, 경영성과 및 IMF이후 변화 등을 조사하였음
 - 가. 투자형태 : 설립방식에 있어 신규설립 혹은 M&A, 지분참여 정도에 있어 100%지분확보 혹은 100%미만 지분확보인 경우를 조사
 - 나. 투자동기 : 생산효율추구, 시장추구, 전략적 자원확보, 현지국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 조사
 - 다. 기대(수혜)투자 인센티브 : 세제 인센티브, 보조금지급, 시장보장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 조사
 - 라. 공장입지 결정요인 : 시장근접지역, 외국인투자전용공단,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조치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 조사
 - 마. 기업의 현지화 및 글로벌화 정도

1) 선진국의 경우 미국·영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후진국의 경우 태국·스리랑카·말레이시아·중국·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이상 아시아), 러시아(유럽),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이상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였음.

2) 총200개사 중 업종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업체 19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수치임.

3) 본 조사의 설문지 작성 및 분석틀은 KOTRA 임성훈 책임연구원이 제공하였음

- 1) 본국과 현지국간 생산제품 및 시장환경의 차이를 현지시장소비자 기호, 현지시장 유통구조 본국과의 문화적 거리 등 3가지로 나누어 조사
- 2) 기업경영의 현지화 정도를 현지시장을 위한 제품 수정정도, 중요의사결정의 계획 및 처리정도, 경영활동시 의사결정자의 국적 등 3가지로 구분 조사

바. 경영성과 : 투자동기 달성측면, 수익성 측면으로 나누었음

사. IMF이후 변화 : 공장가동율, 현지시장 매출액, 본국으로부터 수입량, 신규투자, 자산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였음

아. 기타 : 원부자재 및 중간재 구입시 대상국가별 비중, 생산된 제품의 판매시 대상국가별 비중, 3년이내에 철수의향 여부 등을 조사함

II.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1. 세계 해외직접투자(ODI) 동향

가. '97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1) 개황

- ☐ '97년 전세계 해외직접투자는 4,244억불로 27.1% 증가를 기록
- ☐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5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는 다주(多株)매입 M&A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개발도상국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신규설립이나 소주(少株)매입 형태의 M&A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표 I-1> 세계 해외직접투자(ODI) 현황

(단위:십억불,%)

	1996년		1997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외국인직접투자 유출	333	-0.5	424	27.1
외국인직접투자 유출 누계	3조115	11.5	3조541	13.7
국경간 M&A 규모 ¹⁾	163	15.5	236	45.2

1)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50% 이상의 주식 획득 M&A 기준

자료:UNCTAD, WIR98

- ☐ 해외직접투자는 일부 국가 및 지역에 집중되는 지역편중성을 보임.
상위 10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79.9%, 상위 15개국이 88%를 차지하는 등 일부 국가로 집중되었음
- ☐ 또한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전체 유출액 중 84.8%를 차지함으로써 신흥개발국의 14.4%에 비해 큰 격차가 나타남

- ☐ 최대 해외직접투자국 위치는 1,145억불을 기록한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영국, 독일, 일본, 홍콩 등이 기록하고 있음

<표 I-2> '97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순위 및 전체 투자에서의 비중

(단위:십억불,%)

순 위	유 출		
	국 가	유출액	비 중
1	United States	114.5	27.0%
2	United Kingdom	58.2	13.7%
3	Germany	34.3	8.1%
4	Japan	26.0	6.1%
5	Hongkong, China	26.0	6.1%
6	France	24.6	5.8%
7	Netherlands	20.4	4.8%
8	Canada	13.0	3.1%
9	Switzerland	12.0	2.8%
10	Italy	10.2	2.4%
11	Spain	10.0	2.4%
12	Belgium & Luxem.	6.7	1.6%
13	Australia	6.4	1.5%
14	Singapore	5.9	1.4%
15	Tiwan Prov. Of China	5.2	1.2%

1)국제수지 계정상의 순투자⁴⁾ 기준임

자료:UNCTAD,WIR98, IMF, I'S, No.12,1998 재구성

2) 지역별 동향

4) 순투자 기준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투자실적을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총투자액에서 철수 등 투자감소분을 차감한 투자액이며 국제기구 및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순투자 기준으로 투자 유출입 실적을 집계하고 있음. 그 외의 집계기준으로 신고기준, 승인기준, 도착기준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개발국들이 신고기준, 승인기준, 순투자 기준 등을 혼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단순신고제를 운영하고 방위산업 등 일부에 있어서만 허가제를 병행하므로 신고기준과 승인기준이 차이가 거의 없음 따라서 다른 나라와 비교시에는 승인기준과 순투자 기준을 사용할 것임

☐ 미국

- 1997년 한해 세계 총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 미국 및 해외주요투자지역의 경제적 고성장 지속
- 특히, 전통적인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인 라틴아메리카 및 EU지역에의 해외직접투자가 상당히 증가
- 해외직접투자의 반 이상이 재투자수익(reinvested earnings)으로 조달되지만, 1997년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주로 M&A에서 비롯됨

☐ EU

- EU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EU 역내 및 주요투자지역인 미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음
- EU 역내 국가 대부분이 1997년 한해 동안 전년도와 같거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
 - euro화 도입(1999)에 따른 단일시장화 기대증가로 역내 투자가 특히 증가

☐ 일본

- '97년도의 경우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경제침체 및 일본 주요은행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았음.
 - '98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재투자수익(reinvested earnings)이 총 해외직접투자의 1/5을 차지하였고, 주식투자는 '96년도의 하락에서 증가로 돌아섬

☐ 아시아 및 대양주

-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주요한 해외직접투자 국가인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음
- 태국 및 말레이시아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였음
 - 베트남, 미얀마를 포함한 역내 투자도 따라서 감소

- 한편,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대만이 주요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홍콩도 주로 중국쪽으로의 투자가 이어졌음.

□ 라틴아메리카

- 자유화(Liberalization), 사유화(Privitization), 지역화(Regionalization)의 영향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해외투자, 특히 역내 투자가 증가
- 이 지역 경제성장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해외직접투자액은 90억불을 기록
 - 일부 비과세 지역을 포함한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의 경우에는 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나라마다 10억불을 초과하였음
- 이지역에는 Cemex of Mexico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지역성 기업(e.g. Companhia Cervejaria Brahma of Brazil 등)임

나.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1) 선진국 주도와 개도국의 부상

- 1996년의 경우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835억 달러(85%) 였고, 후진국은 491억불(15%)에 그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투자가 두드러짐. 그러나 증가율을 보면 선진국은 8% 감소한 반면에 후진국은 8% 증가하여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지역별 편중화

- 1996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홍콩(중국) 등 상위 5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세계 총 해외직접투자액의 59%인 185십억불에 이르러 상위 5개국의 해외직접투자액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⁵⁾

5) 1997년의 경우 상위 5개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홍콩(중국 포함))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59십억불로 전체의 61%를 차지함

1.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가. '98년 개황

- '98년중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액은 5,079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13.1% 감소하였으며, 실제투자액은 3,722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하였는데, 이는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및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투자를 연기·취소하여 신규투자가 대폭 감소한데 반해 기투자된 현지법인의 지원을 위해 투자송금은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I-3>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백만불, %)

구 분		'95	'96	'97	'98
해외투자 (증감율)	신고수리기준	4,949 (38.2)	6,220 (25.7)	5,845 (△6.0)	5,079 (△13.1)
	투자기준	3,070 (33.5)	4,233 (37.9)	3,216 (△24.0)	3,722 (15.7)

자료: 재정경제부, 1999.1.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2,287백만불로서 전년동기 대비 16.4% 감소하였으며, 비제조업은 2,792백만불로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음

<표I-4>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투자기준)

(단위:백만불, %)

업 종	'68~'97	'97 1~12	'98. 1~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5,975 (53.6)	2,735 (46.8)	2,287 (45.0)
무역업	5,184 (17.4)	1,059 (18.1)	1,803 (35.5)
건설업	774 (2.6)	105 (1.8)	151 (3.0)
기 타	7,864 (26.4)	1,946 (33.3)	838 (16.5)
합 계	29,797 (100.0)	5,845 (100.0)	5,079 (100.0)

자료: 재정경제부, 1999.1.

- 지역별로는 아시아는 2,229백만불, 유럽은 915백만불, 중남미는 379백만불로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북미는 1,225백만불로 약간 증가하였음

<표I-5>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투자기준)

(단위:백만불, %)

업 종	'68~'97	'97 1~12	'98. 1~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시아	13,235 (44.4)	2,501 (42.8)	2,229 (43.9)
미 국	6,898 (23.1)	1,195 (20.4)	1,176 (23.2)
유 럽	4,690 (15.7)	1,029 (17.6)	915 (18.0)
중남미	1,794 (6.0)	628 (10.7)	379 (7.5)
기 타	2,425 (8.1)	478 (8.2)	331 (6.5)
합 계	29,797 (100.0)	5,845 (100.0)	5,079 (100.0)

자료:재정경제부, 1999.1.

- 우리나라의 10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98.1~12) (투자기준)

(단위 : US\$천)

순위	국가	투자금액	순위	국가	투자금액
1	미국	1,175,638	6	호주	132,145
2	중국	804,949	7	폴란드	105,984
3	홍콩	475,549	8	태국	104,936
4	싱가폴	291,014	9	필리핀	95,622
5	영국	186,847	10	베트남	91,444

※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상위 5개국에 대한 투자액(2,934백만불)이 전체 해외 투자액(5,079백만불)의 약 57.8%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1999.1.

나. 최근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1) 투자규모의 대형화

□ '95년 이후 전당 총투자규모는 '95년의 2,301천달러에서 '98년에는 2,965천달러로 증가하였음. 특히 투자규모면에서 볼때, 백만불이하 투자가 '95년 5,838건(1.7억불)에서 '98년 8,885건(2.6억불)로 건수와 금액면에서 각각 52%, 52% 증가한데 반해 1,000만불 이상의 투자가 '95년 245건(110억불)에서 '98년 553건(245억불)로 각각 126%, 124%의 증가세를 보여 대규모 해외투자가 급증하였음

기업규모별 투자추이를 보더라도 '98년의 경우 대기업이 투자금액면에서 90.7%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6>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투자기준)

(단위: %)

	'95	'96	'97	'98
대기업	78.1 (20.1)	80.8 (16.9)	77.4 (16.7)	92.2 (18.9)
중소기업	20.4 (70.9)	17.4 (58.2)	18.5 (59.3)	6.9 (53.5)
개인 및 개인사업자	1.5 (9.0)	1.8 (24.8)	4.1 (24.0)	0.9 (27.6)

주:총투자 기준, ()내는 건수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1999.1. 재구성

2) 투자업종의 고도화

□ 제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져,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가 전수로는 전체의 59%, 금액상으로는 전체의 45.7%를 차지함. (표1-7)

제조업중 금액상으로는 기계(65.6%), 석유화학(8.5%), 섬유 의복(5.2%) 순이며, 건수로는 섬유 의복(80), 기계(76), 석유화학(28) 순으로 나타나 중화학 내지 기계 위주의 고도산업 위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1-8)

<표I-7> 연도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투자기준)

(단위:백만불, 건)

	광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보관	무역업	기타	합계
'95	75 (7)	3 (2)	12 (13)	1,989 (922)	80 (41)	36 (14)	295 (117)	579 (189)	3,070 (1,305)
'96	222 (13)	7 (3)	4 (20)	2,232 (995)	86 (31)	15 (15)	945 (110)	722 (249)	4,233 (1,436)
'97	212 (11)	10 (2)	3 (12)	1,426 (830)	77 (24)	76 (30)	438 (99)	974 (274)	3,216 (1,282)
'98	79 (9)	5 (1)	9 (6)	1,702 (321)	86 (14)	18 (20)	1,511 (90)	314 (89)	3,722 (550)

주:()내는 건수

자료:재정경제부, 1999.1.

<표I-8> 제조업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투자기준)

(단위:백만불, 건)

	식음료 품	섬유 의복	신발 가죽	목재 가구	종이 인쇄	석유 화학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기계	총합계
'95	95 (78)	218 (171)	69 (75)	37 (43)	12 (20)	136 (86)	131 (41)	90 (45)	1,086 (242)	1,989 (922)
'96	125 (79)	238 (165)	56 (70)	21 (43)	41 (21)	152 (79)	38 (44)	162 (48)	1,231 (275)	2,231 (995)
'97	31 (47)	147 (137)	28 (51)	10 (29)	42 (15)	109 (58)	22 (25)	250 (34)	696 (268)	1,426 (830)
'98	33 (17)	88 (80)	12 (11)	12 (11)	9 (9)	144 (28)	16 (5)	51 (6)	1,182 (76)	1,702 (321)

주:()내는 건수

자료:재정경제부, 1999.1.

3) 투자지역 편중 완화 (대선진국 투자진출 증가)

□ 금액상으로 보면 '95년의 경우 최대 해외투자대상국인 아주, 북미, 유럽의 비중이 각각 53.8%, 17.8%, 21%였고, '96년에는 38.4%, 37.5%, 15.6%이며, '97년에는 46.6%, 23%, 14.2%이다. 그런데, '98년에는 37.8%, 24.3%, 26.9%로 아주지역에의 투자편중이 많이 완화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북미·유럽·대양주 등 대선진국에의 투자가 금액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장추구'나 선진기술 확보 등의 '전략적 자원확보' 목적의 진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I-9>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투자기준)

(단위:백만불, 건)

	아주	중국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합계
'95	1,652 (1,024)	823 (738)	546 (136)	120 (28)	644 (80)	32 (1)	42 (7)	35 (29)	3070 (1,305)
'96	1,625 (1,063)	825 (718)	1,587 (197)	256 (39)	661 (82)	26 (5)	12 (7)	65 (43)	4,233 (1,436)
'97	1,497 (877)	629 (615)	738 (222)	258 (32)	456 (82)	69 (2)	109 (17)	89 (51)	3,216 (1,282)
'98	1,408 (340)	605 (221)	903 (126)	205 (15)	1,001 (43)	6 (1)	84 (8)	114 (17)	3,722 (550)

주:()내는 건수

자료:재정경제부, 1999.1.

4) 단독투자의 선호

□ 100% 단독투자 형태가 금액상으로 '95년 50%, '96년 52%, '97년 45%, '98년 61% 등으로 '97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기업이 현지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지배권 및 경영권 확보를 통한 해외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1-10)

<표I-10> 투자비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투자 기준)

(단위:백만불, 건)

	20%미만	20%-50% 미만	50%	50%-100% 미만	100%	계
'95	167 (38)	239 (223)	124 (126)	1,015 (272)	1,525 (646)	3,070 (1,305)
'96	276 (50)	698 (240)	128 (105)	943 (300)	2,189 (741)	4,233 (1,436)
'97	185 (53)	448 (189)	125 (94)	1,010 (216)	1,449 (730)	3,216 (1,282)
'98	138 (21)	536 (77)	232 (31)	751 (86)	2,265 (335)	3,722 (550)

주: ()내는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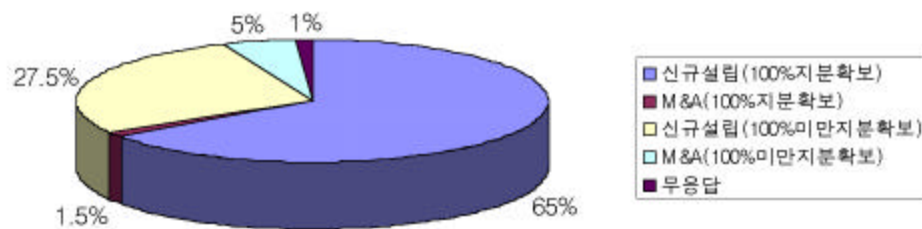
자료:재정경제부, 1999 1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1. 투자형태

□ 신규설립형태가 92.5%임. 이중 100%지분확보에 의한 경우가 65%였고, 100%미만 지분확보에 의한 경우가 27.5%임. M&A에 의한 투자는 6.5%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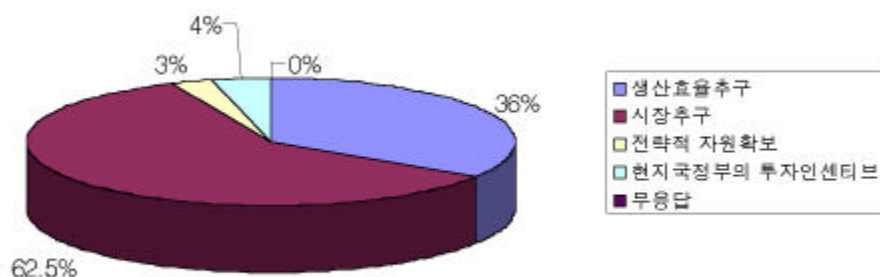
<그림1> 투자형태



2. 해외투자동기

□ 시장추구(62.5%), 생산효율추구(36%) 동기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장추구(91.7%) 동기가, 후진국의 경우 시장추구(58.5%) 및 생산효율추구(40.3%) 동기가 가장 중요한 진출동기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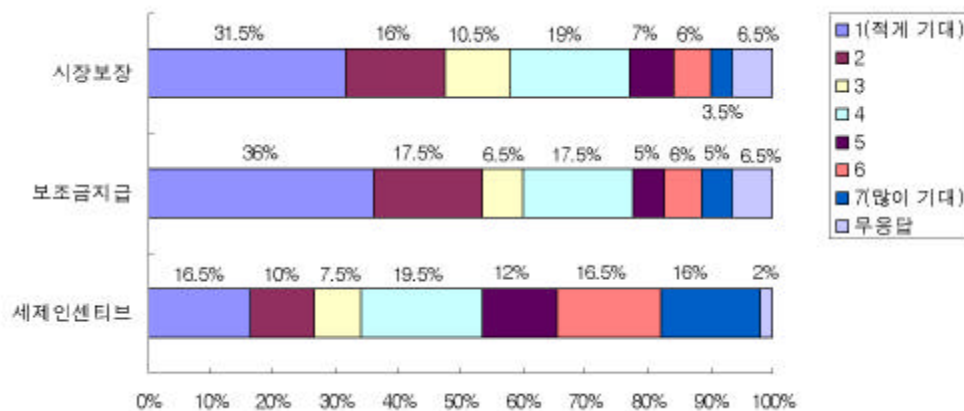
<그림2> 투자진출동기



3. 기대투자 인센티브

□ 세제인센티브, 보조금지급, 시장보장 등 3가지 투자인센티브 기대대상 가운데 많이 기대한 순은 세제인센티브(44.5%), 시장보장(16.5%), 보조금지급(16%)로 나타남.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조금지급(62.5%)에 대한 기대가 높고 후진국의 경우에는 세제인센티브(49.5%)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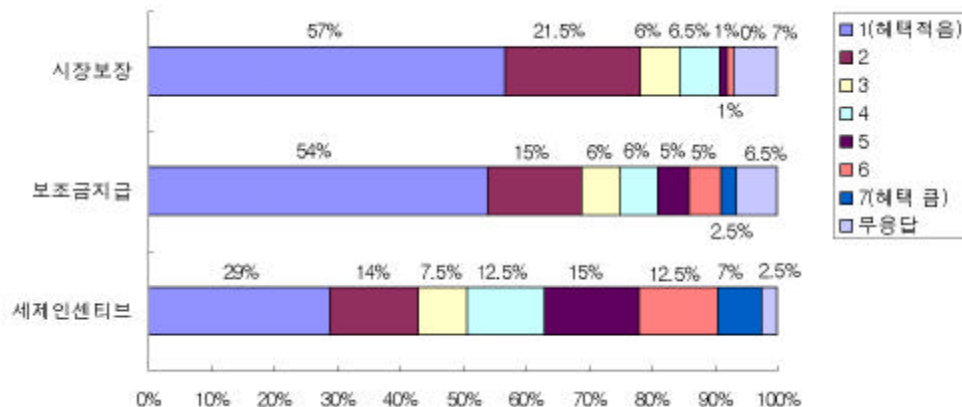
<그림3> 기대투자 인센티브



4. 수혜투자 인센티브

□ 투자인센티브 기대치에 비해 수혜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수혜정도가 제일 적은 인센티브가 시장보장(84.5%)이었고 그다음으로 보조금지급(75%), 세제인센티브(50.5%) 순이었음. 국가별로는 선진국의 경우 세제인센티브 수혜정도가 적다(83.4%)는 응답이 많았고, 후진국의 경우 보조금지급 수혜정도가 낮다(81.9%)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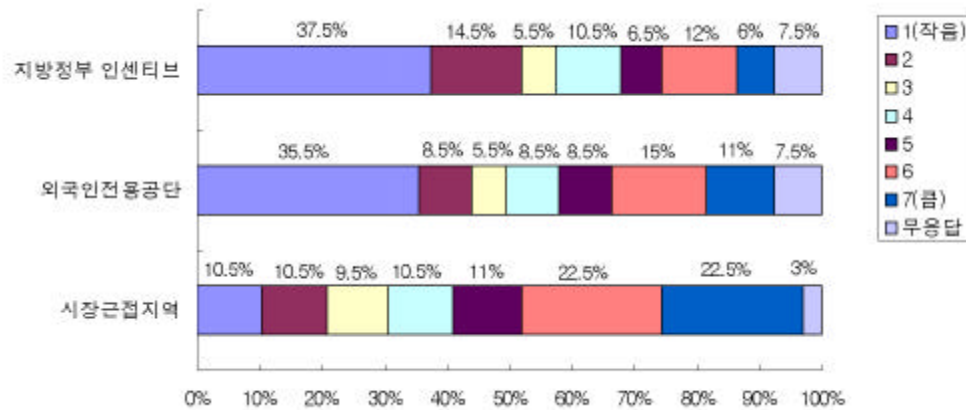
<그림4> 수혜투자 인센티브



5. 공장입지 결정요인

□ 전체적으로 시장근접지역에 대한 입지선호도(56%)가 높았고, 외국인투자전용공단(34.5%),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조건(24.5%)이 공장입지에 미치는 결정요인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선진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조건’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58.3%)

<그림5> 공장입지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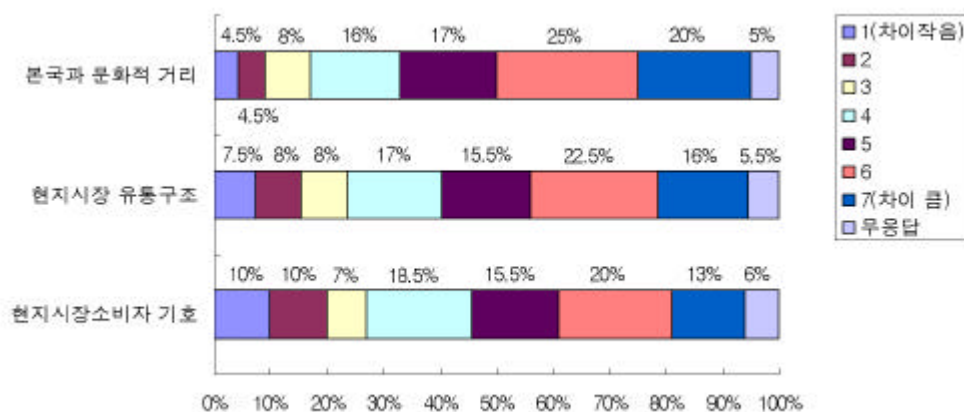


6. 기업의 글로벌화 정도

가. 본국과 현지국간 생산제품 및 시장환경의 차이

□ 본국과의 문화적거리(62%), 현지시장 유통구조(54%), 현지시장 소비자기호(48.5%)의 순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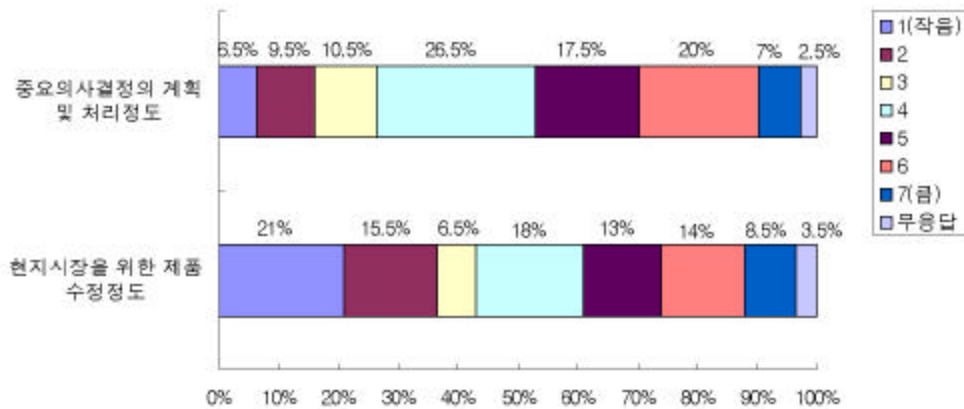
<그림6> 본·현지국간 생산제품 및 시장환경의 차이



나. 기업경영의 현지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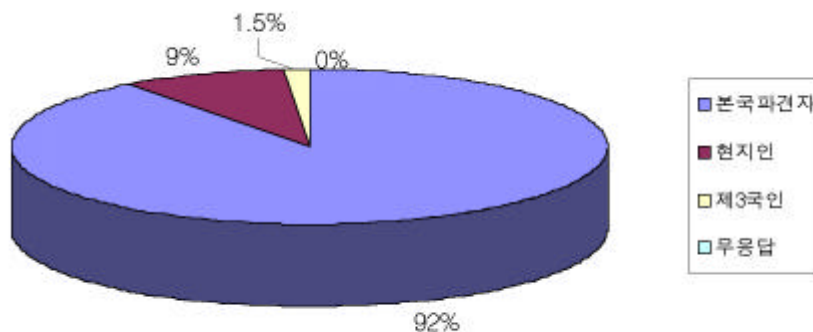
□ ‘중요의사결정의 계획 및 처리정도’에 있어서는 44.5%가 현지화정도가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지시장을 위한 제품 수정정도’도 43%가 작다고 응답하였음.

<그림7> 기업경영의 현지화정도- 1



□ 기업경영활동시 의사결정자의 국적은 92%가 본국파견자이고, 현지인(9%), 제3국인(1.5%)로 나타나 의사결정에 있어 현지화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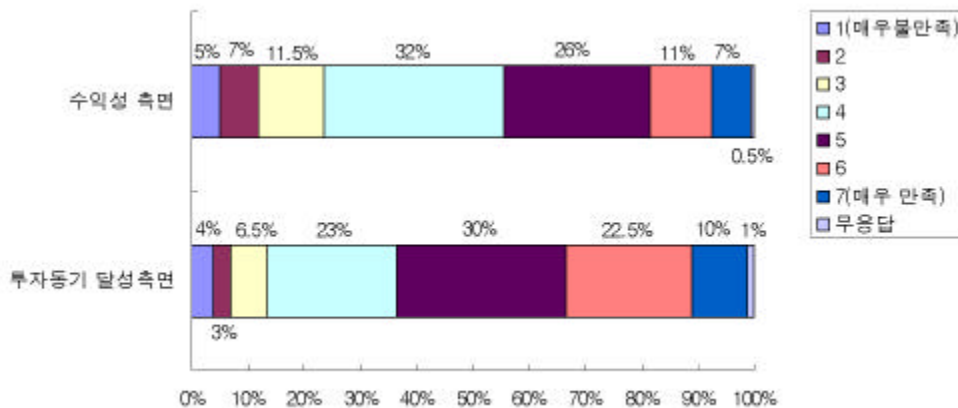
<그림8> 기업경영의 현지화정도- 2
(의사결정자의 국적)



7. 경영성과

□ 해외투자의 경영성과에 대해 우리기업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투자동기달성측면(62.5%), 수익성측면(44%) 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평가에서 만족하다고 하였음. 특히 후진국의 경우 투자동기달성측면에서 65.4%, 수익성측면에서 46.6%로 선진국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9>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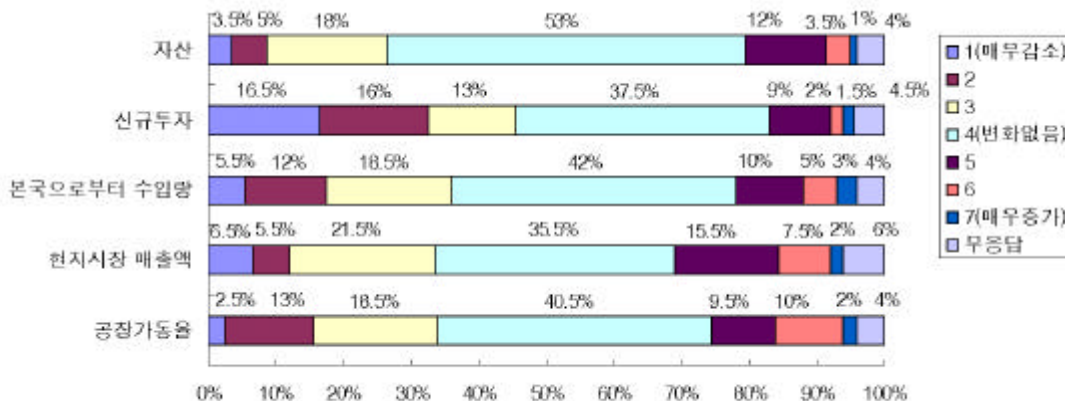


8. IMF 이후 변화

□ 변화없다는 기업이 41.7%로 가장 많고, 감소한 기업이 35.1%, 증가한 기업이 23.2%로 나타났음.

□ 신규투자(45.5%) 및 본국으로부터 수입량(36%)이 특히 감소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의 경우 공장가동을 및 현지시장 매출액이 변화가 없거나 증가했다는 기업이 각각 87.5%, 91.7%로 후진국의 58.6%, 56.2% 보다 높게 나타나 후진국이 특히 더 많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10> IMF 이후 경영활동 변화



제 3 장 조사내용 분석

○ 해외투자업체 중 83.9%는 제조업이며, 이중 영상·음향·통신장비(19%), 섬유제품(17.5%), 고무 및 플라스틱 분야(8%)가 대표적인 업종임

○ 200개 해외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자산액은 24.4백만불이며, 평균매출액은 30.2백만불, 광고선전비는 총매출액 대비 2.4%, 종업원수 549명, 연구개발비는 2%, 연구원수 6명, '98년 현재 투자금액의 평균은 17.1백만불, 설립년도 1993년, 한국인 지분은 86%, 현지파트너 지분의 평균은 14%인 것으로 나타남

㉠. 원부자재 및 중간재 구입/판매시 대상국가별 비중

구입(수입)		판매(수출)	
구입(수입)처	평 균	판매(수출)처	평균
본국(사)로부터 수입	56.6%	본국(사)로 수출	7.6%
현지국에서 구매	26.4%	현지국에서 판매	47.7%
제3국으로부터 구매	17.0%	제3국으로 수출	44.7%

㉡. 3년 이내 철수여부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철수 계획 있음	4(2.0%)	4(2.5%)	-	-	4(2.3%)
철수 계획 없음	191(95.5%)	154(95.1%)	30(96.8%)	24(100%)	167(94.9%)
무응답	5(2.5%)	4(2.5%)	1(3.2%)	-	5(2.8%)

I. 투자형태

□ 전체 : 92.5%가 신규설립형태인데 이중 100% 단독투자가 65%로 가장 많고 100% 미만 지분확보에 의한 경우가 27.5%임. M&A에 의한 투자형태는 6.5%에 불과한 실정임

□ 업종별 : 신규설립형태가 제조업은 92%, 비제조업은 93.5%로 대부분인데, M&A 투자형태는 제조업 7.5%, 비제조업 3.2%로 나타나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M&A에 의한 투자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음

□ 국가별 : 선진국의 경우 100% 단독투자 형태가 전체 평균(66.5%)보다 훨씬 상회한 91.6%에 달함. 후진국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100% 미만 지분확보형태가 선진국의 4.2%에 비해 훨씬 많은 36.4%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특히 아시아 및 중국의 경우는 100% 미만 지분확보형태가 전체 투자형태의 41.1%, 40%에 달해 과반수가 조금 못되는 기업이 100% 미만 지분확보형태로 진출중임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신규설립 (100% 지분확보)	130(65.0%)	103(63.6%)	21(67.7%)	20(83.3%)	110(62.5%)
M&A (100% 지분확보)	3(1.5%)	3(1.9%)	-	2(8.3%)	1(0.6%)
신규설립 (100%미만 지분확보)	55(27.5%)	46(28.4%)	8(25.8%)	1(4.2%)	54(30.7%)
M&A (100%미만 지분확보)	10(5.0%)	9(5.6%)	1(3.2%)	-	10(5.7%)
무응답	2(1.0%)	1(0.6%)	1(3.2%)	1(4.2%)	1(0.6%)

II. 해외투자동기

□ 전체 : 시장추구, 생산효율추구에 의한 경우가 98.5%인 대다수이며, 현지국 투자인센티브가 4%, 전략적 자원확보가 3%로 소수에 그치고 있음. 이중 ‘시장규모 및 성장성, 제3국시장 진출 용이성’ 등 시장추구 목적에 의한 투자동기가 62.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업종별 : 시장추구 동기는 제조업 59.9%, 비제조업 77.4%로 비제조업 분야가 많았으며, 생산효율추구 동기는 제조업 39.5%, 비제조업 16.1%로 제조업분야가 많았음. 특히 비제조업의 경우 전략적 자원확보 동기가 6.5%로 현지국정부의 투자인센티브 동기(3.2%) 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음

□ 국가별 : 선진국의 경우 시장추구 동기가 91.7%로 압도적으로 많으면서도 전략적 자원확보 목적의 투자동기도 12.5%로 두 번째로 강한 동기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후진국의 경우 시장추구 동기 다음으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및 원자재 부품조달’ 등을 고려한 생산효율추구 동기가 40.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투자인센티브의 경우 선진국은 전혀 응답한 기업이 없는 반면에 후진국의 경우 4.5%로 전략적 자원확보 요인(1.7%)보다 많이 응답하였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생산효율추구	72(36.0%)	64(39.5%)	5(16.1%)	1(4.2%)	71(40.3%)
시장추구	125(62.5%)	97(59.9%)	24(77.4%)	22(91.7%)	103(58.5%)
전략적 자원확보	6(3.0%)	4(2.5%)	2(6.5%)	3(12.5%)	3(1.7%)
현지국정부의 투자인센티브	8(4.0%)	6(3.7%)	1(3.2%)	-	8(4.5%)
무응답	-	-	-	-	-

II-1. 해외투자결정요인(생산효율추구)

□ 전체 : 강하게 작용했다가 43%, 약하게 작용했다가 33%로 강하게 작용했다는 기업이 약간 많았음

□ 업종별 : 약하게 작용했다가 제조업은 31.4%, 비제조업은 48.4%이며 강하게 작용했다가 제조업은 45.6%, 비제조업은 29.1%로 나타나 생산효율추구에 의한 투자결정요인은 제조업이 강하게 작용한 걸로 나타남

□ 국가별 : 약하게 작용했다가 선진국은 16.7%, 후진국은 35.2%이며, 강하게 작용했다가 선진국은 37.4%, 후진국은 43.8%로 나타나, 후진국이 약하게 작용한 정도와 강하게 작용한 정도에 있어 높은 응답을 보였음. 후진국의 경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기업이 많았지만 중국 및 중남미의 경우 약하게 작용하는 경우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각각 40%/30%, 53.3%/19.9%로 나타나 오히려 약하다는 응답이 강했으며, 선진국중 미국은 약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40%/30%), 영국은 강하다는 응답이 많았음(0%/42.9%)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20(10.0%)	13(8.0%)	7(22.6%)	2(8.3%)	18(10.2%)
2	24(12.0%)	19(11.7%)	5(16.1%)	1(4.2%)	23(13.1%)
3	22(11.0%)	19(11.7%)	3(9.7%)	1(4.2%)	21(11.9%)
4	33(16.5%)	27(16.7%)	5(16.1%)	8(33.3%)	25(14.2%)
5	21(10.5%)	19(11.7%)	2(6.5%)	5(20.8%)	16(9.1%)
6	37(18.5%)	31(19.1%)	3(9.7%)	2(8.3%)	35(19.9%)
7	28(14.0%)	24(14.8%)	4(12.9%)	2(8.3%)	26(14.8%)
무응답	15(7.5%)	10(6.2%)	2(6.5%)	3(12.5%)	12(6.8%)

II-2. 해외투자결정요인(시장추구)

□ 전체 : 약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13.5%, 강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6%로 시장추구에 의한 해외투자결정이 주요 요인이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 약하게 작용한다고 제조업 14.9%, 비제조업 9.7%이고 강하게 작용한다고 제조업 75.3%, 비제조업 80.6%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이 보다 주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됨

□ 국가별 : 약하게 작용한다고 선진국은 없으며, 후진국 15.3%이고 강하게 작용한다고 선진국 100%, 후진국 72.7%로 선진국이 후진국보다는 시장추구에 의한 해외투자가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후진국중에서는 시장규모가 막대한 중국이 타지역보다 높은 85%가 강하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18(9.0%)	15(9.3%)	3(9.7%)	-	18(10.2%)
2	5(2.5%)	5(3.1%)	-	-	5(2.8%)
3	4(2.0%)	4(2.5%)	-	-	4(2.3%)
4	10(5.0%)	9(5.6%)	1(3.2%)	-	10(5.7%)
5	25(12.5%)	21(13.0%)	3(9.7%)	-	25(14.2%)
6	42(21.0%)	36(22.2%)	5(16.1%)	5(20.8%)	37(21.0%)
7	85(42.5%)	65(40.1%)	17(54.8%)	19(79.2%)	66(37.5%)
무응답	11(5.5%)	7(4.3%)	2(6.5%)	-	11(6.3%)

II-3. 해외투자결정요인(전략적 자원 확보)

□ 전체 : 55%가 약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동기가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2%로 비교적 작았음

□ 업종별 : 약하게 작용한다고 제조업 54.9%, 비제조업 67.7%로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는 ‘전략적 자원 확보’가 주요 투자동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후진국의 경우 주요 투자동기가 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0.8%로 많았으며, 주요동기가 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선진국 54.2%, 후진국 17.7%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보다 주요동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선진국중에서는 특히 영국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기업이 71.4%에 달하였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66(33.0%)	54(33.3%)	12(38.7%)	-	66(37.5%)
2	24(12.0%)	19(11.7%)	5(16.1%)	2(8.3%)	22(12.5%)
3	20(10.0%)	16(9.9%)	4(12.9%)	1(4.2%)	19(10.8%)
4	23(11.5%)	19(11.7%)	2(6.5%)	6(25.0%)	17(9.7%)
5	14(7.0%)	11(6.8%)	2(6.5%)	3(12.5%)	11(6.3%)
6	18(9.0%)	17(10.5%)	1(3.2%)	7(29.2%)	11(6.3%)
7	12(6.0%)	9(5.6%)	3(9.7%)	3(12.5%)	9(5.1%)
무응답	23(11.5%)	17(10.5%)	2(6.5%)	2(8.3%)	21(11.9%)

II-4. 해외투자결정요인(투자인센티브)

□ 전체 : 투자인센티브 요인이 약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39.5%, 강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33.5%로써 비교적 주요동기가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 투자동기로서 약하다는 응답이 제조업 38.9%, 비제조업 51.7%, 강하다는 응답이 제조업 35.3%, 비제조업 25.8%로써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투자인센티브가 주요 동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과급효과를 고려한 현지국의 투자인센티브 시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국가별 : 투자동기로서 약하다는 응답이 선진국 12.5%, 후진국 43.2%, 강하다는 응답이 선진국 50.4%, 후진국 29%로써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선진국중 영국은 주요결정요인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인 반면에 미국은 20%에 불과하여 국별로 차이가 많이 났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40(20.0%)	29(17.9%)	11(35.5%)	2(8.3%)	38(21.6%)
2	18(9.0%)	15(9.3%)	3(9.7%)	1(4.2%)	17(9.7%)
3	21(10.5%)	19(11.7%)	2(6.5%)	-	21(11.9%)
4	33(16.5%)	26(9.3%)	6(19.4%)	3(12.5%)	30(17.0%)
5	22(11.0%)	15(9.3%)	5(16.1%)	1(4.2%)	21(11.9%)
6	33(16.5%)	32(19.8%)	1(3.2%)	10(41.7%)	23(13.1%)
7	12(6.0%)	10(6.2%)	2(6.5%)	5(4.5%)	7(4.0%)
무응답	21(10.5%)	16(9.9%)	1(3.2%)	2(8.3%)	19(10.8%)

III. 기대투자 인센티브

III-1. 기대투자 인센티브 (세제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 전체 : 적게 기대했다는 기업이 34%, 많이 기대했다는 기업이 44.5%로 대체로 세제인센티브를 많이 기대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 적게 기대한 기업이 제조업 30.9%, 비제조업 48.7%이고 많이 기대한 기업이 제조업 45.7%, 비제조업 42%로써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조금 더 기대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많이 기대한 기업이 선진국 8.4%, 후진국 49.5%로 후진국에서의 기대투자 인센티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후진국중 많이 기대했다는 응답이 중남미는 50%, 아시아 49.3%, 중국 45% 순으로 되나 큰 격차는 없었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33(16.5%)	22(13.6%)	9(29.0%)	3(12.5%)	30(17.0%)
2	20(10.0%)	17(10.5%)	3(9.7%)	1(4.2%)	19(10.8%)
3	15(7.5%)	11(6.8%)	3(9.7%)	3(12.5%)	12(6.8%)
4	39(19.5%)	35(21.6%)	2(6.5%)	14(58.3%)	25(14.2%)
5	24(12.0%)	18(11.1%)	6(19.4%)	1(4.2%)	23(13.1%)
6	33(16.5%)	29(17.9%)	3(9.7%)	1(4.2%)	32(18.2%)
7	32(16.0%)	27(16.7%)	4(12.9%)	-	32(18.2%)
무응답	4(2.0%)	3(1.9%)	1(3.2%)	1(4.2%)	3(1.7%)

III-2. 기대투자 인센티브(자본공여, 지대 및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지급)

□ 전체 : 적게 기대한 기업이 60%, 많이 기대한 기업이 16%로 기대투자 인센티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 적게 기대한 기업이 제조업 58%, 비제조업 74.3%로 비제조업에서 보다 적게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이 기대했다는 응답은 제조업 16%, 비제조업 16.2%로 큰 차이가 없었음

□ 국가별 : 기대투자 인센티브가 많다는 응답이 선진국 62.5%, 후진국 9.7%로 선진국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영국의 경우 100%가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10%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72(36.0%)	52(32.1%)	18(58.1%)	4(16.7%)	68(38.6%)
2	35(17.5%)	31(19.1%)	3(9.7%)	1(4.2%)	34(19.3%)
3	13(6.5%)	11(6.8%)	2(6.5%)	-	13(7.4%)
4	35(17.5%)	31(19.1%)	2(6.5%)	2(8.3%)	33(18.8%)
5	10(5.0%)	7(4.3%)	3(9.7%)	1(4.2%)	9(5.1%)
6	12(6.0%)	12(7.4%)	-	8(33.3%)	4(2.3%)
7	10(5.0%)	7(4.3%)	2(6.5%)	6(25.0%)	4(2.3%)
무응답	13(6.5%)	11(6.8%)	1(3.2%)	2(8.3%)	11(6.3%)

III-3. 기대투자 인센티브(정부수주 우선업체선정, 시장진입허용 등 시장보장)

□ 전체 : 시장보장에 대한 기대투자 인센티브는 적다는 응답이 58%, 많다는 응답이 16.5%로 과반수 이상이 적게 기대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 적게 기대한 기업이 제조업 59.8%, 비제조업 51.7%이고 많게 기대한 기업이 각각 14.8%, 22.7%로 나타나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적게 기대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기대투자 인센티브가 낮다는 기업이 선진국 25%, 후진국 62.5%이고 높다는 기업이 각각 12.5%, 17.1%였음.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시장보장에 대한 기대투자 인센티브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선진국중에서도 기대투자 인센티브가 낮다는 기업이 미국은 50%로 나타나 영국의 7.1%에 비해 기대정도가 낮게 나타났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63(31.5%)	49(30.2%)	12(38.7%)	3(12.5%)	60(34.1%)
2	32(16.0%)	30(18.5%)	2(6.5%)	2(8.3%)	30(17.0%)
3	21(10.5%)	18(11.1%)	2(6.5%)	1(4.2%)	20(11.4%)
4	38(19.0%)	30(18.5%)	7(22.6%)	13(54.2%)	25(14.2%)
5	14(7.0%)	12(7.4%)	2(6.5%)	2(8.3%)	12(6.8%)
6	12(6.0%)	10(6.2%)	2(6.5%)	1(4.2%)	11(6.3%)
7	7(3.5%)	2(1.2%)	3(9.7%)	-	7(4.0%)
무응답	13(6.5%)	11(6.8%)	1(3.2%)	2(8.3%)	11(6.3%)

IV. 수혜투자 인센티브

IV-1. 투자인센티브 수혜정도(세제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 전체 : 수혜투자 인센티브가 적다가 50.5%, 많다가 34.5%로 수혜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 수혜정도가 많다는 기업이 제조업 36.4%, 비제조업 25.8%로써 비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수혜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수혜정도가 적다는 기업이 선진국 83.4%, 후진국 46.1%로 선진국이 수혜투자 인센티브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남미는 63.4%로 적다는 기업이 후진국 중 많았으며 선진국가운데 미국은 60%, 영국은 100%로 나타나 영국의 세제인센티브 수혜정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58(29.0%)	44(27.2%)	12(38.7%)	13(54.2%)	45(25.6%)
2	28(14.0%)	25(15.4%)	3(9.7%)	6(25.0%)	22(12.5%)
3	15(7.5%)	10(6.2%)	3(9.7%)	1(4.2%)	14(8.0%)
4	25(12.5%)	20(12.3%)	4(12.9%)	-	25(14.2%)
5	30(15.0%)	25(15.4%)	4(12.9%)	1(4.2%)	29(16.5%)
6	25(12.5%)	21(13.0%)	3(9.7%)	1(4.2%)	24(13.6%)
7	14(7.0%)	13(8.0%)	1(3.2%)	-	14(8.0%)
무응답	5(2.5%)	4(2.5%)	1(3.2%)	2(8.3%)	3(1.7%)

IV-2. 투자인센티브 수혜정도(자본공여,지대 및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지급)

□ 전체 : 보조금지급 혜택이 적다고 한 기업이 75%, 크다고 한 기업이 12.5%로 수혜정도가 적다고 한 기업이 많았음

□ 업종별 : 수혜정도가 적다고 한 기업이 제조업 72.3%, 비제조업 90.3%이고 크다고 한 기업이 제조업 14.3%, 비제조업 6.4%로써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의 수혜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혜택이 적다고 한 기업이 선진국 25.1%, 후진국 81.9%로써 후진국에서 보조금지급 투자인센티브 수혜가 훨씬 적다고 나타남. 반대로 수혜정도가 많다는 응답은 선진국이 62.5%로써 후진국의 5.7%보다 매우 많았음. 선진국중 미국은 수혜정도가 크다고 한 응답이 10%에 불과한 반면 영국이 100%로 나타났고 후진국중 비교적 수혜혜택이 큰 국가로는 중남미로써 13.3%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108(54.0%)	80(49.4%)	24(77.4%)	4(16.7%)	104(59.1%)
2	30(15.0%)	27(16.7%)	3(9.7%)	1(4.2%)	29(16.5%)
3	12(6.0%)	10(6.2%)	1(3.2%)	1(4.2%)	11(6.3%)
4	12(6.0%)	11(6.8%)	-	1(4.2%)	11(6.3%)
5	10(5.0%)	9(5.6%)	1(3.2%)	3(12.5%)	7(4.0%)
6	10(5.0%)	9(5.6%)	1(3.2%)	8(33.3%)	2(1.1%)
7	5(2.5%)	5(3.1%)	-	4(16.7%)	1(0.6%)
무응답	13(6.5%)	11(6.8%)	1(3.2%)	2(8.3%)	11(6.3%)

IV-3. 투자인센티브 수혜정도(정부발주시 우선업체로 선정,시장진입허용 등 시장보장)

□ 전체 : 시장보장 수혜정도가 적다고 응답한 기업이 84.5%, 크다고 응답한 기업이 2%로써 대다수 기업이 시장보장에 대한 수혜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기업이 제조업 85.2%, 비제조업 84%이고, 크다고 한 기업이 각각 1.8%, 3.2%로 제조업에서 조금 더 혜택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혜택이 적었던 기업은 선진국 79.1%, 후진국 85.2%로써 후진국이 보다 시장보장에 대한 수혜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중 중국은 80%가 적다고 한 반면 중남미는 90%가 수혜혜택이 적다고하였음. 선진국중에서도 영국은 92.9%가 혜택이 적다고하여 영국의 시장보장 투자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114(57.0%)	93(57.4%)	18(58.1%)	11(45.8%)	103(58.5%)
2	43(21.5%)	36(22.2%)	6(19.4%)	6(25.0%)	37(21.0%)
3	12(6.0%)	9(5.6%)	2(6.5%)	2(8.3%)	10(5.7%)
4	13(6.5%)	9(5.6%)	3(9.7%)	2(8.3%)	11(6.3%)
5	2(1.0%)	1(0.6%)	1(3.2%)	1(4.2%)	1(0.6%)
6	2(1.0%)	2(1.2%)	-	-	2(1.1%)
7	-	-	-	-	-
무응답	14(7.0%)	12(7.4%)	1(3.2%)	2(8.3%)	12(6.8%)

V. 공장입지 결정요인

V-1. 공장(현지법인) 입지 결정요인 - 시장근접지역(대도시등 인구밀집지역)

□ 전체 : 시장근접지역에 대한 입지선호도는 30.5%가 작다고 응답한 반면에 56%가 많다고하여 대체로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 제조업은 51.3%가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74.2%가 주요입지 결정요인이 된다고 함으로써 비제조업의 시장근접지역에 대한 입지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시장근접지역에 대한 입지결정요인이 작다고 응답한 기업은 선진국은 37.5%, 후진국은 29.5%이고 크다고 응답한 기업은 선진국 58.3%, 후진국 55.7%로써 대체로 선진국이 시장근접지역에 대한 입지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후진국중 아시안을 제외한 중국 및 중남미는 시장근접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80%, 63.4%로써 대체로 높은 응답을 보였음. 한편, 선진국중 미국의 경우도 90%로 나타나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21(10.5%)	18(11.1%)	3(9.7%)	-	21(11.9%)
2	21(10.5%)	19(11.7%)	2(6.5%)	3(12.5%)	18(10.2%)
3	19(9.5%)	17(10.5%)	1(3.2%)	6(25.0%)	13(7.4%)
4	21(10.5%)	20(12.3%)	1(3.2%)	1(4.2%)	20(11.4%)
5	22(11.0%)	16(9.9%)	5(16.1%)	-	22(12.5%)
6	45(22.5%)	38(23.5%)	6(19.4%)	8(33.3%)	37(21.0%)
7	45(22.5%)	29(17.9%)	12(38.7%)	6(25.0%)	39(22.2%)
무응답	6(3.0%)	5(3.1%)	1(3.2%)	-	6(3.4%)

V-2. 공장(현지법인) 입지 결정요인 - 외국인 투자전용공단, 경제특구

□ 전체 : 외국인 전용공단 및 경제특구에 대한 입지결정요인은 작다가 응답한 기업은 49.5%, 크다고 응답한 기업은 34.5%로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 입지결정요인으로서 작다고 응답한 기업이 제조업 42.6%, 비제조업 83.9%이고, 크다고 응답한 기업은 제조업 41.4%, 비제조업 6.5%로써 비제조업의 경우 입지결정요인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작다고 응답한 기업이 선진국 45.8%, 후진국 49.9%이고, 크다고 응답한 기업이 선진국 20.8%, 후진국 36.4%로써 후진국이 외국인전용공단 등에 대한 입지선호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중 중국의 경우는 15%로 낮게 응답한 반면, 아시아 및 중남미의 경우 선호도가 높다는 응답이 34.2%, 46.6%로 나왔음. 한편, 미국의 경우 입지결정요인으로서 외국인전용공단 및 경제특구가 크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없었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71(35.5%)	46(28.4%)	22(71.0%)	3(12.5%)	68(38.6%)
2	17(8.5%)	14(8.6%)	3(9.7%)	5(20.8%)	12(6.8%)
3	11(5.5%)	9(5.6%)	1(3.2%)	3(12.5%)	8(4.5%)
4	17(8.5%)	15(9.3%)	1(3.2%)	5(20.8%)	12(6.8%)
5	17(8.5%)	15(9.3%)	2(6.5%)	3(12.5%)	14(8.0%)
6	30(15.0%)	30(18.5%)	-	2(8.3%)	28(15.9%)
7	22(11.0%)	22(13.6%)	-	-	22(12.5%)
무응답	15(7.5%)	11(6.8%)	2(6.5%)	3(12.5%)	12(6.8%)

V-3. 공장(현지법인) 입지 결정요인 -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조건

□ 전체 :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조건이 입지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응답한 기업은 57.5%, 크다고 응답한 기업은 24.5%로써 과반수 이상 기업이 입지결정요인이 작다고 응답함

□ 업종별 : 입지결정요인이 작다고 한 기업이 제조업 54.4%, 비제조업 77.4%이고 크다고 한 기업이 제조업 28.4%, 비제조업 6.4%로써 비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더 입지결정요인으로서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음.

□ 국가별 : 입지결정요인이 작다고 한 기업은 20.8%인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62.5%로써 많았음.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 입지결정요인이 크다고 한 기업이 58.3%로 나타나 후진국의 20%에 비해 많은 점으로 보아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조건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영국의 경우 92.8%가 입지결정요인이 크다고 응답하여 지방정부의 인센티브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75(37.5%)	50(30.9%)	23(74.2%)	3(12.5%)	72(40.9%)
2	29(14.5%)	28(17.3%)	1(3.2%)	2(8.3%)	27(15.3%)
3	11(5.5%)	10(6.2%)	-	-	11(6.3%)
4	21(10.5%)	17(10.5%)	3(9.7%)	2(8.3%)	19(10.8%)
5	13(6.5%)	11(6.8%)	1(3.2%)	2(8.3%)	11(6.3%)
6	24(12.0%)	24(14.8%)	-	10(41.7%)	14(8.0%)
7	12(6.0%)	11(6.8%)	1(3.2%)	2(8.3%)	10(5.7%)
무응답	15(7.5%)	11(6.8%)	2(6.5%)	3(12.5%)	12(6.8%)

VI. 기업의 글로벌화 정도

VI-1. 본국과 현지국간 생산제품 및 시장환경의 차이(현지시장소비자 기호)

□ 전체 : 현지시장소비자 기호와의 차이가 작다는 응답이 27%, 크다는 응답이 48.5%로 나타나 현지시장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업종별 : 제조업은 작다는 응답이 29%, 크다는 응답이 45.6%이고, 비제조업은 작다는 응답이 19.3%, 크다는 응답이 64.5%로 나타나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이 소비자기호에 있어 현지시장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국가별 : 선진국의 경우 작다는 응답이 0%, 크다는 응답이 54.2%, 후진국의 경우 작다는 응답이 30.8%, 크다는 응답이 47.8%로 나타나 선진국이 후진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비자기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후진국 중 본현지국간 시장소비자기호의 차이가 크다는 응답이 아시안은 45.2%, 중국은 85%, 중남미는 60.1%로 나타나, 중국이 특히 소비자기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선진국의 경우 차이가 크다는 응답이 미국은 80%, 영국은 35.7%로 미국이 현지시장 소비자 기호가 차이가 많이 나타났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20(10.0%)	15(9.3%)	4(12.9%)	-	20(11.4%)
2	20(10.0%)	19(11.7%)	1(3.2%)	-	20(11.4%)
3	14(7.0%)	13(8.0%)	1(3.2%)	-	14(8.0%)
4	37(18.5%)	30(18.5%)	5(16.1%)	10(41.7%)	27(15.3%)
5	31(15.5%)	26(16.0%)	3(9.7%)	5(20.8%)	26(14.8%)
6	40(20.0%)	31(19.1%)	9(29.0%)	7(29.2%)	33(18.8%)
7	26(13.0%)	17(10.5%)	8(25.8%)	1(4.2%)	25(14.2%)
무응답	12(6.0%)	11(6.8%)	-	1(4.2%)	11(6.3%)

VI-2. 본국과 현지국간 생산제품 및 시장환경의 차이(현지시장 유통구조)

□ 전체 : 현지시장유통구조상의 본현지국간 차이가 작다는 응답이 23.5%, 크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수 이상이 유통구조상의 차이가 크다고 응답하였음

□ 업종별 : 차이가 작다는 응답이 제조업 25.9%, 비제조업 16.2%로 나타났고 차이가 크다는 응답이 제조업 51.9%, 비제조업 67.7%로 나타나 비제조업이 차이가 크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편차가 큰 걸로 나타났음

□ 국가별 : 차이가 작다는 응답이 선진국 0%, 후진국 26.7%로 나타났고 차이가 크다는 응답이 선진국 66.7%, 후진국 52.3%로 나타나 선진국이 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선진국중 미국은 80%, 영국은 50%로 미국이 현지시장 유통구조상의 차이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15(7.5%)	12(7.4%)	3(9.7%)	-	15(8.5%)
2	16(8.0%)	14(8.6%)	2(6.5%)	-	16(9.1%)
3	16(8.0%)	16(9.9%)	-	-	16(9.1%)
4	34(17.0%)	26(16.0%)	5(16.1%)	8(33.3%)	26(14.8%)
5	31(15.5%)	27(16.7%)	3(9.7%)	8(33.3%)	23(13.1%)
6	45(22.5%)	35(21.6%)	9(29.0%)	7(29.2%)	38(21.6%)
7	32(16.0%)	22(13.6%)	9(29.0%)	1(4.2%)	31(17.6%)
무응답	11(5.5%)	10(6.2%)	-	-	11(6.3%)

VI-3. 본국과 현지국간 생산제품 및 시장환경의 차이(본국과 문화적 거리)

□ 전체 : 본국과의 문화적거리가 차이가 작다는 응답이 17%, 크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업종별 : 차이가 작다는 응답이 제조업 17.9%, 비제조업 12.9%이며 크다는 응답이 제조업 61%, 비제조업 67.8%로 나타나 비제조업에서 문화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차이가 작다는 응답이 선진국 0%, 후진국 19.3%이며 크다는 응답이 선진국 75%, 후진국 60.2%로 나타나 선진국이 후진국에 비해 문화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선진국중 영국(78.5%)이 미국(70%)보다 문화적 거리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진국의 경우 아시아(57.6%), 중국(60%) 보다 남미(73.3%)가 문화적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9(4.5%)	6(3.7%)	3(9.7%)	-	9(5.1%)
2	9(4.5%)	8(4.9%)	-	-	9(5.1%)
3	16(8.0%)	15(9.3%)	1(3.2%)	-	16(9.1%)
4	32(16.0%)	25(15.4%)	6(19.4%)	5(20.8%)	27(15.3%)
5	34(17.0%)	30(18.5%)	3(9.7%)	5(20.8%)	29(16.5%)
6	50(25.0%)	43(26.5%)	6(19.4%)	10(41.7%)	40(22.7%)
7	40(20.0%)	26(16.0%)	12(38.7%)	3(12.5%)	37(21.0%)
무응답	10(5.0%)	9(5.6%)	-	1(4.2%)	9(5.1%)

VI-4. 기업경영의 현지화정도 (현지시장을 위한 제품 수정정도)

□ 전체 : 현지시장을 위한 제품 수정정도가 작다는 응답이 43%, 크다는 응답이 35.5%로 작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음

□ 업종별 : 수정정도가 작다는 응답이 제조업 44.4%, 비제조업 38.7%이며 크다는 응답이 제조업 32.7%, 비제조업 48.4%로 나타나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이 현지제품 수정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작다는 응답이 선진국 8.4%, 후진국 47.4%이며 크다는 응답이 선진국 37.5%, 후진국 35.2%로 나타나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제품수정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크다는 응답에서는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약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후진국중 차이가 크다는 응답이 중국(40%), 아시아(43%), 중남미(63.5%)로 중남미가 현지시장을 위한 제품 수정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진국중 미국(40%)이 영국(35.7%)보다 현지수정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42(21.0%)	36(22.2%)	6(19.4%)	1(4.2%)	41(23.3%)
2	31(15.5%)	24(14.8%)	5(16.1%)	1(4.2%)	30(17.0%)
3	13(6.5%)	12(7.4%)	1(3.2%)	-	13(7.4%)
4	36(18.0%)	33(20.4%)	2(6.5%)	11(45.8%)	25(14.2%)
5	26(13.0%)	18(11.1%)	8(25.8%)	2(8.3%)	24(13.6%)
6	28(14.0%)	24(14.8%)	3(9.7%)	7(29.2%)	21(11.9%)
7	17(8.5%)	11(6.8%)	4(12.9%)	-	17(9.7%)
무응답	7(3.5%)	4(2.5%)	2(6.5%)	2(8.3%)	5(2.8%)

VI-5. 기업경영의 현지화정도 (중요의사결정의 계획 및 처리정도)

□ 전체 : 중요의사결정의 계획 및 처리정도의 현지화정도는 26.5%가 작다고 응답한 반면, 44.5%가 크다고 응답하였음

□ 업종별 : 작다는 응답이 제조업 26.6%, 비제조업 25.9%이며 크다는 응답이 제조업 43.8% 비제조업 48.5%로 나타나 비제조업이 현지화정도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작다는 응답이 선진국 12.5% 후진국 28.5%이며, 크다는 응답이 선진국 25% 후진국 47.2%로 나타나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보다 현지화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선진국의 경우 현지화정도가 크다는 응답에서 미국은 40%인 반면 영국은 14.3%에 그쳐, 미국이 현지화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13(6.5%)	10(6.2%)	3(9.7%)	2(8.3%)	11(6.3%)
2	19(9.5%)	15(9.3%)	3(9.7%)	-	19(10.8%)
3	21(10.5%)	18(11.1%)	2(6.5%)	1(4.2%)	20(11.4%)
4	53(26.5%)	44(27.2%)	7(22.6%)	14(58.3%)	39(22.2%)
5	35(17.5%)	24(14.8%)	10(32.3%)	1(4.2%)	34(19.3%)
6	40(20.0%)	36(22.2%)	3(9.7%)	5(20.8%)	35(19.9%)
7	14(7.0%)	11(6.8%)	2(6.5%)	-	14(8.0%)
무응답	5(2.5%)	4(2.5%)	1(3.2%)	1(4.2%)	4(2.3%)

VI-6. 기업경영의 현지화정도 (의사결정자의 국적)

□ 전체 : 92.6%가 본국파견자이며, 나머지 현지인(9.0%), 제3국인(1.5%)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 : 비제조업 분야는 100% 본국파견자였으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90.7%가 본국파견자, 10.5%가 현지인, 1.9%가 제3국인으로 나타났음

□ 국가별 : 선진국이 본국파견자 87.5%, 현지인 12.5%, 제3국인 0% 였으며 후진국은 본국파견자 90.7%, 현지인 10.5%, 제3국인 1.9%로 나타나 제조업과 후진국지역에서의 현지화정도가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본국파견자	184(92.0%)	147(90.7%)	31(100%)	21(87.5%)	147(90.7%)
현지인	18(9.0%)	17(10.5%)	-	3(12.5%)	17(10.5%)
제3국인	3(1.5%)	3(1.9%)	-	-	3(1.9%)
무응답	-	-	-	-	-

VII. 경영성과

VII-1. 해외투자에 대한 평가 (투자동기 달성측면)

□ 전체 : 투자동기 달성에 있어 경영성과가 낮다고 응답한 기업이 13.5%, 높다고 응답한 기업이 62.5%로 나타났음

□ 업종별 : 낮다는 응답이 제조업 15.4%, 비제조업 6.4% 였으며 높다는 응답이 제조업 64.2%, 비제조업 51.7%로 나타나 제조업이 낮다는 응답과 높다는 응답 양면에서 비제조업보다 많이 나왔음

□ 국가별 : 낮다는 응답이 선진국 12.5% 후진국 14.2%이며, 높다는 응답이 선진국 25.1% 후진국 65.4%로 나타나 후진국이 투자동기 달성측면의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후진국중 남미가 73.3%, 아시아 63.7%, 중국 55%의 순으로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났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8(4.0%)	7(4.3%)	1(3.2%)	-	8(4.5%)
2	6(3.0%)	5(3.1%)	1(3.2%)	-	6(3.4%)
3	13(6.5%)	13(8.0%)	-	3(12.5%)	11(6.3%)
4	46(23.0%)	33(20.4%)	12(38.7%)	15(62.5%)	36(20.5%)
5	60(30.0%)	51(31.5%)	8(25.8%)	4(16.7%)	51(29.0%)
6	45(22.5%)	36(22.2%)	6(19.4%)	1(4.2%)	44(25.0%)
7	20(10.0%)	17(10.5%)	2(6.5%)	1(4.2%)	20(11.4%)
무응답	2(1.0%)	-	1(3.2%)	-	-

VII-2. 해외투자에 대한 평가 (수익성 측면)

□ 전체 : 수익성측면의 경영성과에 있어 낮다는 응답은 23.5%, 높다는 응답은 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업종별 : 낮다는 응답이 제조업 24.6%, 비제조업 19.4%이며 높다는 응답이 제조업 45.1%, 비제조업 35.5%로 나타나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 국가별 : 낮다는 응답이 선진국 12.5%, 후진국 25.1%이며 높다는 응답이 선진국 25.1%, 후진국 46.6%로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많은 수익성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후진국중 아시아, 중남미는 46.5%, 46.6%인 반면에 중국은 25%로 높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10(5.0%)	7(4.3%)	2(6.5%)	-	10(5.7%)
2	14(7.0%)	13(8.0%)	1(3.2%)	-	14(8.0%)
3	23(11.5%)	20(12.3%)	3(9.7%)	3(12.5%)	20(11.4%)
4	64(32.0%)	48(29.6%)	14(45.2%)	15(62.5%)	49(27.8%)
5	52(26.0%)	44(27.2%)	6(19.4%)	4(16.7%)	48(27.3%)
6	22(11.0%)	18(11.1%)	4(12.9%)	1(4.2%)	21(11.9%)
7	14(7.0%)	11(6.8%)	1(3.2%)	1(4.2%)	13(7.4%)
무응답	1(0.5%)	1(0.6%)	-	-	1(0.6%)

VIII. IMF 이후 변화

VIII-1. IMF체제이후 경영활동상 변화 (공장가동율)

□ 전체 : 공장가동율상의 변화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34%, 변화없다는 응답이 40.5%, 증가했다는 응답이 21.5%로 나타나 비교적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 업종별 : 감소했다는 응답이 제조업 34%, 비제조업 38.8%이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제조업 39.5%, 비제조업 25.8%이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제조업 22.9%, 비제조업 6.4%로써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공장가동율상의 증가가 많았음

□ 국가별 : 감소했다는 응답이 선진국 12.5%, 후진국 36.9%이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선진국 62.5%, 후진국 37.5%이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선진국 25%, 후진국 23%로 나타나 후진국에서 공장가동율상의 감소가 많은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87.5%가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후진국중 공장가동율 감소가 많은 지역은 아시아로 40.3%에 달했으며 중국의 경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30%로 비교적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공장가동율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으나 영국은 감소했다는 응답은 많았으나 증가했다는 응답은 14.3%에 달해 경영상의 호전은 타지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5(2.5%)	3(1.9%)	2(6.5%)	-	5(2.8%)
2	26(13.0%)	23(14.2%)	2(6.5%)	-	26(14.8%)
3	37(18.5%)	29(17.9%)	8(25.8%)	3(12.5%)	34(19.3%)
4	81(40.5%)	64(39.5%)	16(51.6%)	15(62.5%)	66(37.5%)
5	19(9.5%)	17(10.5%)	-	3(12.5%)	16(9.1%)
6	20(10.0%)	17(10.5%)	1(3.2%)	3(12.5%)	17(9.7%)
7	4(2.0%)	3(1.9%)	1(3.2%)	-	4(2.3%)
무응답	8(4.0%)	6(3.7%)	1(3.2%)	-	8(4.5%)

VIII-2. IMF체제이후 경영활동상 변화 (현지시장 매출액)

□ 전체 : 현지시장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3.5%, 변화없다는 응답은 35.5%, 증가했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나 대체로 감소하거나 현재매출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 감소했다는 응답이 제조업 32.2%, 비제조업 42%이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제조업 37%, 비제조업 32.3%이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제조업 24.7%, 비제조업 22.6%로 나타나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매출액 감소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 감소했다는 응답이 선진국 4.2%, 후진국 37.6%이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선진국 50%, 후진국 33.5%이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선진국 41.7%, 후진국 22.7%로 나타나 선진국의 경우 매출액 감소가 적은 반면에 후진국은 매출액 감소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남. 후진국중 아시아는 특히 40.4%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13(6.5%)	10(6.2%)	2(6.5%)	-	13(7.4%)
2	11(5.5%)	10(6.2%)	1(3.2%)	-	11(6.3%)
3	43(21.5%)	32(19.8%)	10(32.3%)	1(4.2%)	42(23.9%)
4	71(35.5%)	60(37.0%)	10(32.3%)	12(50.0%)	59(33.5%)
5	31(15.5%)	25(15.4%)	4(12.9%)	6(25.0%)	25(14.2%)
6	15(7.5%)	12(7.4%)	3(9.7%)	3(12.5%)	12(6.8%)
7	4(2.0%)	3(1.9%)	-	1(4.2%)	3(1.7%)
무응답	12(6.0%)	10(6.2%)	1(3.2%)	1(4.2%)	11(6.3%)

VIII-3. IMF체제이후 경영활동상 변화 (본국으로부터 수입량)

□ 전체 : 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36%, 변화없다는 응답이 42%, 증가했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남

□ 업종별 : 감소했다는 응답이 제조업 37%, 비제조업 35.6%이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제조업 42%, 비제조업 45.2%이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제조업 19.2%, 비제조업 6.4%로 나타나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의 수입량 감소가 두드러짐

□ 국가별 : 감소했다는 응답이 선진국 37.5%, 후진국 35.8%이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선진국 33.3%, 후진국 43.2%이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선진국 20.8%, 후진국 17.5%로 나타남.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50%이나 영국은 전혀 없었음. 한편 후진국의 경우 중국이 감소했다는 응답 40%로 타지역에 비해 수입량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11(5.5%)	8(4.9%)	3(9.7%)	-	11(6.3%)
2	24(12.0%)	22(13.6%)	2(6.5%)	-	24(13.6%)
3	37(18.5%)	30(18.5%)	6(19.4%)	9(37.5%)	28(15.9%)
4	84(42.0%)	68(42.0%)	14(45.2%)	8(33.3%)	76(43.2%)
5	20(10.0%)	17(10.5%)	1(3.2%)	2(8.3%)	18(10.2%)
6	10(5.0%)	9(5.6%)	1(3.2%)	2(8.3%)	8(4.5%)
7	6(3.0%)	5(3.1%)	-	1(4.2%)	5(2.8%)
무응답	8(4.0%)	3(1.9%)	4(12.9%)	2(8.3%)	6(3.4%)

VIII-4. IMF체제이후 경영활동상 변화 (신규투자)

□ 전체 : 신규투자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45.5%, 변화없다가 37.5%, 증가했다는 응답이 12.5%로 나타나 감소한 기업이 반 정도 되었음

□ 업종별 : 감소했다는 응답이 제조업 48.8%, 비제조업 35.5%이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제조업 34.6%, 비제조업 54.8%이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제조업 13%, 비제조업 1%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경우 신규투자 증가가 거의 없으며 제조업의 경우도 기존투자분의 유지나 감소가 많았음.

□ 국가별 : 감소했다는 응답이 선진국 54.2%, 후진국 44.4%이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선진국 33.3%, 후진국 38.1%이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선진국 4.2%, 후진국 13.7%로 나타나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의 신규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진국중 특히 중남미의 경우 23.3%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아시아(11.7%), 중국(10%)보다 상대적으로 신규투자가 증가한 기업이 많았으며, 선진국중 영국의 경우 신규투자가 증가한 기업은 없었으며, 감소한 기업도 71.4%에 달해 미국의 30%보다 많아 투자 감소가 심했음이 나타남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33(16.5%)	28(17.3%)	4(12.9%)	-	33(18.8%)
2	32(16.0%)	32(19.8%)	-	3(12.5%)	29(16.5%)
3	26(13.0%)	19(11.7%)	7(22.6%)	10(41.7%)	16(9.1%)
4	75(37.5%)	56(34.6%)	17(54.8%)	8(33.3%)	67(38.1%)
5	18(9.0%)	15(9.3%)	1(3.2%)	1(4.2%)	17(9.7%)
6	4(2.0%)	4(2.5%)	-	-	4(2.3%)
7	3(1.5%)	2(1.2%)	-	-	3(1.7%)
무응답	9(4.5%)	6(3.7%)	2(6.5%)	2(8.3%)	7(4.0%)

VIII-5. IMF체제이후 경영활동상 변화 (자산)

□ 전체 : 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26.5%, 변화없다는 기업이 53%, 증가했다는 기업이 16.5%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변화가 없는 가운데 감소한 기업이 증가한 기업보다는 많았음

□ 업종별 : 감소했다는 응답이 제조업 28.4%, 비제조업 19.3%이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제조업 52.5%, 비제조업 64.5%이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제조업 16.6%, 비제조업 9.7%로 나타나 제조업은 감소, 비제조업은 현상유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국가별 : 감소했다는 응답이 선진국 25%, 후진국 26.7%이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선진국 58.3%, 후진국 52.3%이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선진국 4.2%, 후진국 18.1%로 나타나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선.후진국 통틀어 자산이 감소했다는 기업이 많은 지역은 영국으로 35.7%가 응답했으며, 미국, 중국은 10%에 그쳐 타지역보다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고 아시아의 경우 자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19.2%로 나타나 타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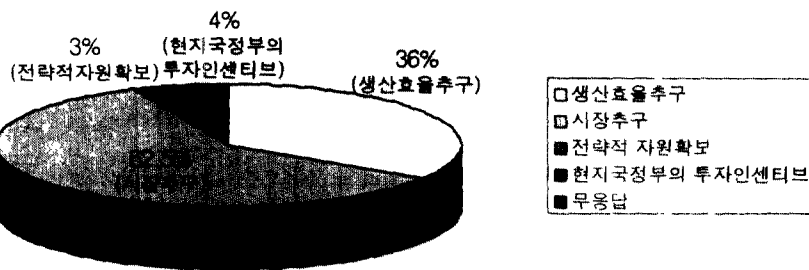
	합 계	업 종		국 가	
		제조업	비제조업	선진국	후진국
1	7(3.5%)	7(4.3%)	-	-	7(4.0%)
2	10(5.0%)	9(5.6%)	1(3.2%)	-	10(5.7%)
3	36(18.0%)	30(18.5%)	5(16.1%)	6(25.0%)	30(17.0%)
4	106(53.0%)	85(52.5%)	20(64.5%)	14(58.3%)	92(52.3%)
5	24(12.0%)	20(12.3%)	3(9.7%)	-	24(13.6%)
6	7(3.5%)	6(3.7%)	-	1(4.2%)	6(3.4%)
7	2(1.0%)	1(0.6%)	-	-	2(1.1%)
무응답	8(4.0%)	4(2.5%)	2(6.5%)	3(12.5%)	5(2.8%)

제 4 장 맺 음 말

○ 해외투자동기 및 투자형태

- 투자동기는 투자진출국 시장을 겨냥한 시장추구(62.5%)가 가장 중요한 동기이며, 그 다음으로 전략적 자원확보(선진국), 저임노동력 등을 고려한 생산효율추구(후진국)인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동기가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현지국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와 같은 사업편의적 요인은 선·후진국 모두 투자동기로서 미약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투자진출동기>



- 투자형태는 신규설립이 압도적으로 많으며(93%), 이중 100% 단독투자가 65%에 해당하여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형태가 지배권 및 경영권 확보 위주의 해외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대투자 인센티브와 수혜투자 인센티브

- 투자결정시점에서 투자진출대상국이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정도는 세제인센티브(45%), 시장보장(17%), 보조금지급(1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조금지급(63%)에 대한 기대가 높고 후진국의 경우에는 세제인센티브(50%)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투자인센티브 기대치에 비해 실제 수혜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기대치가 높은 세계인센티브는 35%가 혜택이 많다고 하였고, 보조금지급은 13%, 시장보장은 2%가 혜택이 많았다고 응답하였음. 후진국의 경우 세계인센티브에 대한 기대치(50%)보다 수혜치(38%)가 낮게 나타나 보다 세계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에 대한 기대치와 수혜치가 63%로 동일하게 나타나 기대한 만큼 수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장입지 결정요인

- 시장근접지역(56%) 및 외국인투자전용공단(35%)에 대한 입지선호도가 높았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조건에 대한 입지선호도는 25%로 낮았으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조건에 대한 입지선호도가 58%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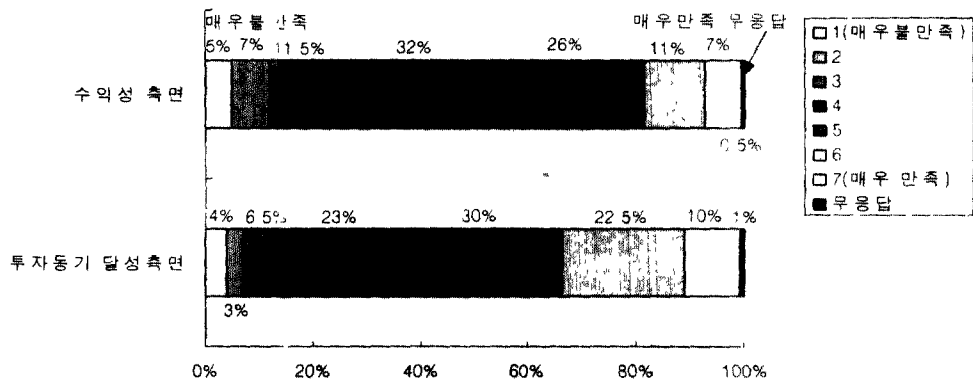
○ 기업의 현지화 및 글로벌화 정도

- 본국과 현지국간의 환경 차이
 - 문화적거리, 현지시장 유통구조, 현지시장 소비자 기호에 대해 차이가 크다는 응답이 각각 62%, 54%, 49%로 현지시장과의 환경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볼 때 투자진출기업의 현지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의 현지화 정도
 - 현지에서 중요의사결정이 계획되거나 처리되는 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업체가 45%이고, 현지시장을 위해 제품을 수정하는 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업체가 43%로 나타나 앞의 기업환경의 현지화 요구에 대비 기업경영의 현지화정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활동시 의사결정자의 국적
 - 92%가 본국에서 파견된 자이고, 현지인(9%), 제3국인(1.5%)은 소수에 그쳐, 인력관리에 있어 글로벌화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경영성과

- 투자동기 달성측면에서 6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음
- 수익성 측면에서는 44%만이 만족, 34%가 불만족하다고 하므로써 경영 성과에 대해 진한기업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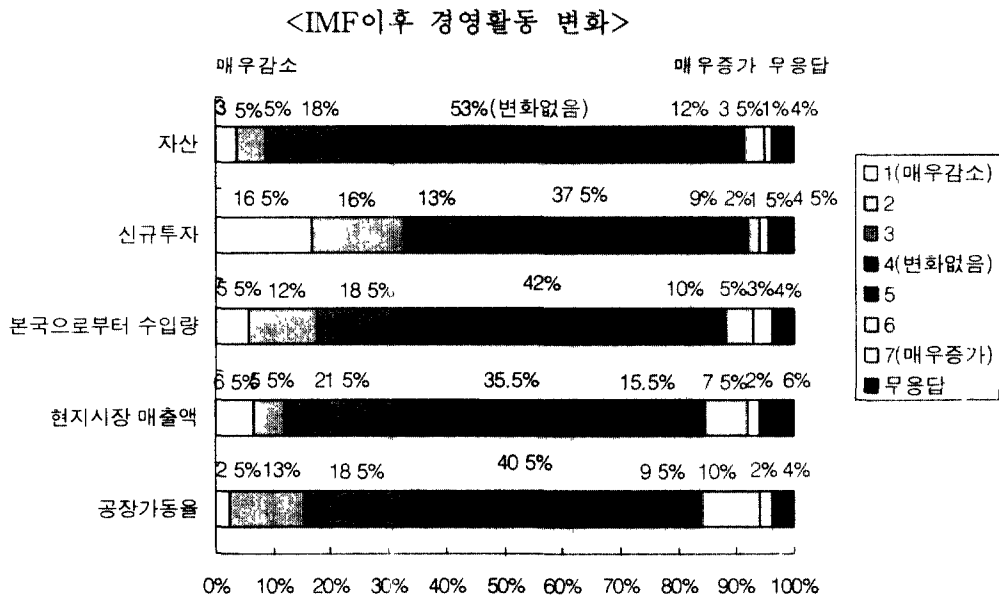


○ IMF 이후 경영활동상의 변화

공장가동율, 현지시장 매출액, 본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신규투자, 자산 등 5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규투자를 제외하고는 감소한 기업보다 변화가 없는 기업이 많았음. 한편, 증가한 기업도 13 ~ 25% 가량 되어 일부 호전된 기업도 있었음

- 공장가동율에 있어서 감소한 기업이 34%, 변화없음이 41%, 증가한 기업이 22%로 나타나 변화없거나 감소한 기업이 많았음.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의 공장가동율 감소한 기업이 많았음

- 현지시장매출액은 감소한 기업이 34%, 변화없음이 36%, 증가한 기업이 25%로 나타나 변화없거나 감소한 기업이 많았음.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의 매출액 감소한 기업이 많았음
- 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한 기업이 36%, 변화없음이 42%, 증가한 기업이 18%로 나타나 변화없거나 감소한 기업이 많았음. 특히 중국지역의 경우 감소한 기업이 타지역보다 높은 40%에 달했음
- 신규투자는 감소한 기업이 46%, 변화없음이 38%, 증가한 기업이 13%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이 신규투자를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에 있어서는 감소한 기업이 27%, 변화없음이 53%, 증가한 기업이 17%로 나타나 변화없거나 감소한 기업이 많았음



3. 示唆點

○ 해외투자기업, IMF 영향 불구 경영활동상의 변화없는 기업 많아

-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5.75%의 성장을 하였고, 투자대상지역도 미국.아시아 위주가 아닌 유럽.아프리카 등지로 폭넓게 진출하는 경향이 있음
- 한편, 200개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4개에 불과한 점
 - 경영성과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 IMF이후 공장가동율이나 현지시장 매출액 등 경영활동이 악화된 기업이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 실제 진출한 기업들의 경영실태 사례를 볼 때, 현지투자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무조건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우리기업들의 현지화 요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지화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하여 현지화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지화 및 글로벌화 제고 노력 필요

- 조사대상 기업들은 현지국과의 시장환경이 차이가 크다고 응답하여 본국과 현지국간의 환경차이에 따른 현지화 요구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의 현지경영 및 제품수정시 따르는 현지화 노력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현지경영시 관리자의 대부분이 본국파견자인 것으로 볼 때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본 조사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나라 해외투자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과 경영활동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KOTRA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 해외진출 기업의 경영활동 조사」입니다.

응답내용은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사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에는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팩스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KOTRA Kuala Lumpur Office (예시)

9th Fl., Mui Plaza,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Malaysia

(Tel :242-0756, 9939 Fax : 242-2107)

담당자 : 홍길동

각 문항에 맞게 번호 또는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의 투자형태는 어떠합니까? ()

- (1) 신규설립방식으로 100% 지분확보
- (2) M&A방식으로 100% 지분확보
- (3) 신규설립방식으로 100% 미만 지분확보
- (4) M&A방식으로 100% 미만 지분확보

2. 다음의 해외투자동기 중 가장 중요한 진출동기는 무엇입니까? ()

- (1) 생산효율추구(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원자재 및 부품조달 등)
- (2) 시장추구(시장규모 및 성장성 제 3국시장 진출 용이성 등)
- (3) 전략적자원확보(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습득 등)
- (4) 현지국정부의 투자인센티브(조세감면, 보조금지급, 시장보장 등)

※ 다음의 해외투자동기 중 귀사의 진출동기는 각 항목당 어느 정도였습니까?

	약하게 작용					강하게 작용	
3. 생산효율추구	☐ 1	☐ 2	☐ 3	☐ 4	☐ 5	☐ 6	☐ 7
4. 시장추구	☐ 1	☐ 2	☐ 3	☐ 4	☐ 5	☐ 6	☐ 7
5. 전략적자원확보	☐ 1	☐ 2	☐ 3	☐ 4	☐ 5	☐ 6	☐ 7
6. 투자인센티브	☐ 1	☐ 2	☐ 3	☐ 4	☐ 5	☐ 6	☐ 7

※ 해외투자시 현지국 정부에게 기대한 투자인센티브는 각항목 당 어느 정도였습니까?

	적게 기대					많이 기대	
7. 세제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fiscal incentives)	☐ 1	☐ 2	☐ 3	☐ 4	☐ 5	☐ 6	☐ 7
8. 자본 공여, 지대 및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지급(financial incentives)	☐ 1	☐ 2	☐ 3	☐ 4	☐ 5	☐ 6	☐ 7
9. 정부수주 우선업체선정, 시장 진입허용 등 시장보장 (market preferences)	☐ 1	☐ 2	☐ 3	☐ 4	☐ 5	☐ 6	☐ 7

※ 해외투자시 현지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인센티브 수혜정도는 어떻습니까?

	혜택적음					혜택 큼	
10. 세제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fiscal incentives)	☐ 1	☐ 2	☐ 3	☐ 4	☐ 5	☐ 6	☐ 7
11. 자본 공여, 지대 및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지급(financial incentives)	☐ 1	☐ 2	☐ 3	☐ 4	☐ 5	☐ 6	☐ 7
12. 정부 발주시 우선업체로 선정, 시장진입허용 등 시장보장 (market preferences)	☐ 1	☐ 2	☐ 3	☐ 4	☐ 5	☐ 6	☐ 7

※ 해외투자시 국가선택후 공장 및 현지법인의 입지 결정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음						큼
13. 시장근접지역(대도시등 인구밀집지역)	☐ 1	☐ 2	☐ 3	☐ 4	☐ 5	☐ 6	☐ 7
14. 외국인 투자전용공단, 경제특구	☐ 1	☐ 2	☐ 3	☐ 4	☐ 5	☐ 6	☐ 7
15.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조건	☐ 1	☐ 2	☐ 3	☐ 4	☐ 5	☐ 6	☐ 7

※ 본국과 현지국간 생산제품 및 시장환경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차이작음					차이 큼	
16. 현지시장소비자 기호	☐ 1	☐ 2	☐ 3	☐ 4	☐ 5	☐ 6	☐ 7
17. 현지시장 유통구조	☐ 1	☐ 2	☐ 3	☐ 4	☐ 5	☐ 6	☐ 7
18. 본국과 문화적 거리	☐ 1	☐ 2	☐ 3	☐ 4	☐ 5	☐ 6	☐ 7

※ 귀사의 기업경영의 현지화 정도는 어떠합니까?

	작음						큼
19. 현지시장을 위한 제품 수정정도	☐ 1	☐ 2	☐ 3	☐ 4	☐ 5	☐ 6	☐ 7

	작음						큼
20. 중요의사결정의 계획 및 처리정도	☐ 1	☐ 2	☐ 3	☐ 4	☐ 5	☐ 6	☐ 7

21 현재 귀사의 경영활동시 의사결정자의 국적은? ()

(1) 본국 파견자 (2) 현지인 (3) 제3국인

※ 귀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평가는?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22. 투자동기 달성측면	☐ 1	☐ 2	☐ 3	☐ 4	☐ 5	☐ 6	☐ 7
23. 수익성 측면	☐ 1	☐ 2	☐ 3	☐ 4	☐ 5	☐ 6	☐ 7

※ 우리 나라의 IMF 체제이후 귀사의 경영활동상 변화는 어떠합니까?

24. 공장가동율	매우감소 변화없음 매우증가 1 2 3 4 5 6 7
25. 현지시장 매출액	매우감소 변화없음 매우증가 1 2 3 4 5 6 7
26. 본국으로부터 수입량 (원자재, 중간재, 반제품)	매우감소 변화없음 매우증가 1 2 3 4 5 6 7
27. 신규투자	매우감소 변화없음 매우증가 1 2 3 4 5 6 7
28. 자산	매우감소 변화없음 매우증가 1 2 3 4 5 6 7

※ 원부자재 및 중간재 구입시(sourcing) 대상국가별 비중은 어떠합니까?

29. 본국(본사)로부터 수입 :		%
30. 현지국에서 구매 :		%
31. 제3국으로부터 구매 :		%
합 계 :		100 %

※ 생산된 제품의 판매시 대상국가별 비중은 어떠합니까?

32. 본국(본사)로 수출 :		%
33. 현지국에서 판매 :		%
34. 제3국으로 수출 :		%
합 계 :		100 %

35. 귀사는 3년이내에 철수 계획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아래설문은 귀사의 개요에 해당하는 설문입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가급적 정확히,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 현지법인 명			
P. 모기업 명			
36. 대표업종	(◆ 아래 업종분류표를 참고하여 번호기재 바랍니다)		
37. 총자산액	천달러	38. 총매출액	천달러
39. 광고선전비(매출액대비)	%	40. 종업원수	명
41. 연구개발비(매출액대비)	%	42. 연구원수	명
43. 현재투자금액(98년기준)	천달러	44. 설립연도	년
현재 투자지분 비율	(45. 한국인지분 %)	(46. 현지 파트너지분 %)	

(◆ 화폐단위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업종분류표

제조업

(1) 음식료품	(9) 화합물 및 화학제품	(17) 영상·음향·통신장비
(2) 섬유제품	(10) 고무 및 플라스틱	(18)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3) 의복 및 모피제품	(11) 비금속광물제품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4) 가죽,신발	(12) 제1차 금속	(20) 기타운송장비
(5) 목재·나무제품	(13) 조립금속제품	(21) 가구,장신구,악기
(6) 펄프·종이·종이제품	(14) 기타기계 및 장비	(22) 재생재료가공처리업
(7) 출판·인쇄·기록매체	(15) 사무·계산·회계용기계	
(8) 코크스·정유제품	(16) 기타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비제조업

(23) 농업,수렵업,임업,어업	(27)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	(31)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
(24) 광업,채석업	(28) 숙박·음식업	(32) 기타서비스
(25) 전기·가스·수도	(29) 운수·창고·통신	
(26) 건설	(30) 금융·보험	

감사합니다.